

재미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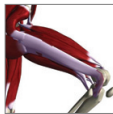
과학상식

❖ 개는 정말로 풀을 뜯어 먹는다 ❖



흔히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빚대어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욕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실제로 개들은 풀을 뜯어 먹기 때문이다. 특히 연한 새싹을 좋아한다. 개 외에 호랑이, 사자, 고양이들도 풀을 뜯어먹는데, 항균제·구충제·진통제 성분이 들어 있는 풀을 찾아서 먹을 줄도 안다. 뿐만 아니라 원숭이 역시 잡식 이라기보다는 초식동물에 훨씬 가깝고, 토끼가 물 없이 산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 초능력(?)의 비밀 ❖



간혹 차바퀴 밑에 깔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 어머니가 자동차를 들어 올렸다는 등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극히 드물지만, 가능한 일이다. 보통 인간의 근육은 최대한 낼 수 있는 힘의 채 10%도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성인남성의 넓적다리 근육을 모두 쓰면 1톤의 힘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근육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뇌는 절대로 과도한 근육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초능력(?)의 어머니는, 위급한 순간에 뇌의 명령 없이 본능적으로 100% 가까운 근력을 모두 사용했을 것이나, 아마도 어깨근육은 완전히 파열되고 말았을 것이다.

❖ <킹콩>의 존재는 가능할까? ❖



영화 속 '킹콩'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답은 '불가능하다'이다. 고릴라의 평균 신장은 1.8m. 그러나 영화 '킹콩'에 나오는 거대 고릴라는 키가 18m다. 이렇게 키가 크면 일단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 심장에서 밀어올린 혈액을 5m이상의 높이에 있는 뇌까지 도달하게 하려면 엄청난 혈압이 요구된다. 발끝까지 갔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매우 힘든 일이다. 키 18m의 킹콩이 영화에서처럼 공룡하고 싸우거나 펄쩍펄쩍 뛰며 흥분을 하면, 제아무리 크고 튼튼한 심장이라 해도 격렬하게 펌프질을 하다 파열되거나 마비되고 말 것이다.

❖ 복어와 미나리는 찰떡궁합 ❖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복어와 미나리다. 복에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란 독성분은 동물성 자연독 중에서도 가장 강해서 물에도 녹지 않고, 가열해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미나리의 무기질 성분은 매우 효과적으로 복어의 독을 해독해 준다. 생선회와 무채도 역시 찰떡궁합. 생선회에는 고도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는 산화가 매우 빠른데다, 일단 산화되면 몸에 해로워진다. 그런데 회 밑에 깔려 나오는 무채는 비타민 C를 매우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회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